



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

NEW
순복음Life
제13호

발행일 : 2017. 5 . 7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이달의 신앙 간증>

-이경애 집사-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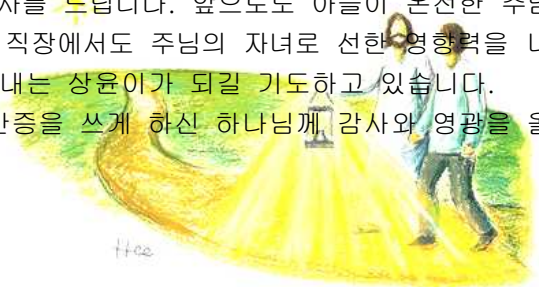
저에게 이렇게 귀한 간증의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며 가슴이 떨리고 벅차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첫아이 상윤이에 대해서 간증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교회가 아닌 곳은 사실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교회를 옮기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것에 더 마음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날 저녁예배 후 교회 사택 지붕 보수 공사로 한 귀퉁이에 쌓아 놓았던 함석을 남자 집사님들이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있던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 놀고 있었구요. 그리고 얼마 후 상윤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고 불길한 생각에 얼른 뛰어가 보니 상윤이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우는 상윤이를 안고 정신없이 병원을 찾아갔고 입이 많이 찢어져서 케메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 겁먹고 크게 울기 시작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닢선 아저씨 한분이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예수님 믿냐고 묻기도 하시고 아이를 위해 기도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참 감사했지만 상윤이를 봐야하고 정신 없던 마음에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그분과는 헤어졌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섬기던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라 하시며 저희에게 고대 감리교회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 교회로 가보았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천천히 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박은주 집사님과 김경화 집사님이 저에게 당진순복음교회를 가보자고 제의를 했고 지금의 우리 사모님과 전도사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중 예배는 끊기면 안된다는 말씀에 당진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를 정할 때까지는 예배생활이라도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보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상윤이에게 기도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혹시 나와 상윤이를 기억하고 계실까?’ 생각하며 예배 후 목사님께 다가가 인사드리니 닢행히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곧바로 교인등록을 하고 우리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윤이는 유치등부, 상우는 유치부로 다니며 신앙생활 하던 중 제게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윤이가 찬양단들과 함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절함이 부족했는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 아이가 중2 올라가면서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간절하고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하니 아이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양을 잘 듣지 않던 아이가 찬양을 들으며 잠을 잤고 핸드폰은 게임보다 찬양 듣는 용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고등학교 진학 문제도 있었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도 안된다는 학교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아들이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병연이 형이랑 같이 성가대 서라하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상윤이는 주님 안에서 살았고 고3을 맞이하여 취업이라는 숙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자면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학업성적도 좋아야 하는데 상윤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선생님의 말씀과 번번히 이력서를 내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상윤이도 지쳐가고 저와 남편도 지쳤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의 11월도 다 지나가던 어느 날 지금의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 하여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서산으로 배정되었던 일터를 주님께서 본사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곳의 대표이사도 기독교인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들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직장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윤이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간증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17. 가장 최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던 일을 간증해 주세요.

=면허를 따고 20년만에 하는 운전이라 두렵기도 할 텐데,
차량등록하고 빗속에 차 끌고 집에까지 오는데 하나도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더라
구요.

18. 교사라는 이름과 구역장이란 이름과 엄마라는 이름 중 무엇이 가장 힘든 이름인가요?

=한결같이 어렵기는 하나 굳이 힘들을 이야기한다면 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9. 염려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조금의 염려가 들 때면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사님께서 염려를 바꿔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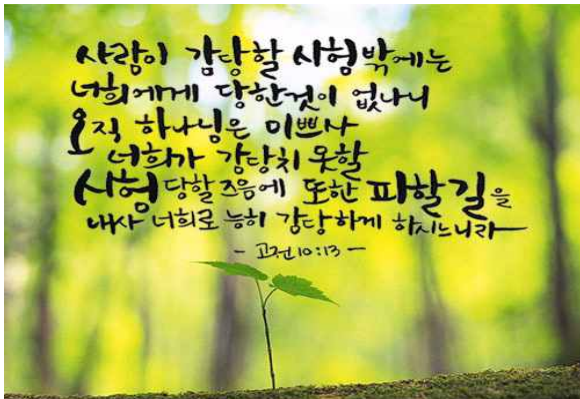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제겐 가장 큰 문제이지요. 더군다나 차량까지 있다보니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더라구요. 하지만 근심하지 않는 것은 차량을 구할 때 “하나님 유지비 또한 허락해 달라”고 옛날부터 구했었거든요.

20. 우리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20년 후 당진순복음교회를 스케치해주세요~^^...

=20년 후...우리는 한나가 되어 있겠네요. 제 3의 성전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건축되어지고 50지역 300가정 1000명의 성도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자녀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역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뒤에서 기도 해 주고 격려 해 주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맘 넓은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 있을겁니다.



성도알아가기

-구옥순 집사-

1. 집사님의 출생지와 출신학교 그리고 최초로 가보았던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해요.

=이사를 많이 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완주군 조그마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났고, 학교는 대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2~3년을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 보았고 기간은 여름성경학교 때 인거 같습니다. 초등학교 2~3학년에 잠깐 다닌거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즐겁게 재미있게 다녔던 것 같아요.

2. 어린시절, 학창시절, 그리고 결혼 전 집사님의 모습을 회상해 주세요.

=어린시절.... 5남매 중에 막내였고 형제들과 나이 차가 있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다보니 이쁨을 많이 받아서인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성격으로 성장한 듯합니다.

학창시절은.... 우리 때부터 교복이 폐지되고 자유복장이 되다보니 청자켓과 디스코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 만화를 좋아했고, 롤러스케이트장을 즐겼습니다. 결혼전 시절... 일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을 만들고 일일 찾집을 해서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 동네 저 동네 여행사를 통해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행도 다니며 살았습니다.

3. 내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 모든 것이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심하게 극단적이고 상대를 향한 배려와 섬세하고 봄날의 따사로움이 없다는 것 등..많습니다. 어찌하든....
장점....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4. 5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걸 진짜 잘했고 이걸 진짜 잘못했다. 생각되는 것을 디테일하게 적어주세요.

=현재 48살 이구요....

세상이 좋아 좋아 하며 살던 그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했고, 복음의 소리에 귀 닫고 눈 감고 살았던 것이 후회됩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서 힘들고 어렵게 주님을 다시 만나고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 꼭! 꼭! 붙어 있음이 참 잘 한 일입니다.

5. 내 인생의 리즈시절은 언제일까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6. 나는 딸인 하나에게 이런 엄마였고 이런 엄마이고 싶다는 적어주세요

=나의 삶과 행동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고, 나중에 하나가 지금의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외할머니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되어지고 들려주는 엄마이고 싶습니다.

7. 돌아가신 하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아빠셨고 어떤 남편이셨는지 궁금해요.

=하나 아빠는 약한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게 베풀었고, 마음 주는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퍼주고 마음 표현이 너무도 약한 사람이었으나, 딸 하나에게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함을 알았는지 아낌없이 표현하고 사랑해주었고 끔찍이도 예뻐했습니다. 만 3년을 다 채우지 못한 기간 동안 하나에게는 최고의 아빠였던것 같습니다. 남편으로써는 완전 별로였습니다.

8. 어릴적부터 하나가 피아노를 잘 치더니 지금은 반주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게 해 주시네요. 하나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적어주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여지며,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며, 기도로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며,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찾고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9. 집사님의 파파두부와 구떡이라 불리는 떡볶이와 토마토스파게티는 우리교회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맛이에요. 앞으로 도전하여 성도님들의 입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감사 할 뿐입니다.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찌하다보니 그런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좋아하신다면 노력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 하나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아이를 봐달라고 한다면 몇 명까지 봐 주실 수 있으세요? ^^

=하나가 어릴때는 몰랐는데 크면 클수록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2남3녀가 좋겠다고, 애는 키워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네요.

11. 요즘 차를 몰고 운전하고 다니시는데요. 내 인생의 운전이란 ?

=아직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걸어다닐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으나 운전을 하다보니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닌 내가 보아야 할 곳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고, 2~3일 한번씩 전화를 하시며 “언제나 한번 올수 있나?” “바쁘면 오지말구” 언제나 가슴 한 복판에 눈물로 아픔으로 자리한 딸을 보고 싶어하시는 어머니에게 조금은 쉽게 한번이라도 다녀 올 수 있는 도구이며, 외롭디 외로운 시부모님에게 약간의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고, 또한 상대를 배려하고 먼저 가려는 욕심이 아닌 양보의 미덕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12. 집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미운 자식은 딱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십니다.

아직은 쉽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벼이 내주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풍성하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은 꼭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은 꼭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3. 하나가 집사님과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이길 소망하시는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집사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글쎄요. 너무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겠지요. 자식을 키우다보니 “어찌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과 말을 종종 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 “나 또한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겠지” 싶더라고요.

14.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고 싶은 삶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삶을 통해 친정과 시댁에 구원을 이루어가며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 선한 일에 엄청 많이 부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5. 집사님께서 성경구절을 줄줄 외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불들고 기도하며 힘을 얻는 내 인생의 말씀구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생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그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어느 날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너는 무엇을 하다왔니?” 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한 보따리 하며 살았으니까. 그 즈음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행]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의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는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겠다 싶더라고요.

16. 영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집사님께서 회복해야할 영성은 무엇인가요?

=더 간절히 부르짖는 통회하는 기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 13:14-17



웃으십시오!



매 주일마다 점심 식사 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움직이며 사역하시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교회 꿈나무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닐까요? 유치부에서부터 유초등부에 이르는 모든 선생님들과 주일은 아니지만 학생과 청년을 이끄시는 사모님과 전도사님 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열심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알아가며 예수님 닮은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등을 준비하시며 애쓰시지만 결코 수고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하십니다. 여름성경학교와 학.청 수련회 기간이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을 맴돌듯 하시지요.~

어느새 이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 일꾼이 되고 결혼하여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까지 품에 안고 잉태한 권찰님도 두분이나 있는 것 다 아시지요?

이 모두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열심히 헌신하시는 모든 교사분들을 칭찬합니다.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참 감사하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래가 선생님들 때문에 무지개처럼 아름답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은혜스러운 기관 이름 삼행시

밀- 밀알이 되어 썩어지고
알- 알곡이 되어 열매맺는 청년회 되겠습니다
요- 요리조리 보아도
한-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한 남선교회
바- 바다같이 넓고 큰
울- 울 교회 기둥 되는 바울!
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마- 마음을 하나로 하여
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우리는
엘- 엘사다이를 믿는 임마누엘 학생회입니다
한- 한마음 한뜻으로
나- 나누는 주님의 사랑
에- 에스더는 항상 주님께
스- 스마일하며
더- 더욱 충성하는 기관입니다

에- 에스더여선교회 회원들의
스- 스며드는 아가페 사랑을
더- 더욱 더 느껴보세요

에- 에스더 여선교회
스- 스타성이 보이네
더- 더없이 사랑스러운 기관이랍니다

마- 마리아는
리-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아- 아름다운 여성기관

마- 마음이
리- 이리도 고울까요
아- 아 ~~ 아름다운 마음의 여선교회 마리아 ~
마- 마리아 여선교회는
리-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가듯
아-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성장해가는 여선교회입니다
마- 마리아와 당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리- 리베로가 되어 천국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아- 아름다운 면류관 받는 모두들 되세요

리- 리턴즈 주님께로 뜨겁게 돌아와
브- 브라보
가- 가장 먼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시다

리- 리더하는 킹카들
브- 브레이크 걸지마라
가- 가자 가자 천국에 소망 두고

리- 리본을 예쁘게 달고
브- V자로 애교를 담아
가- 가장 멋지게 찍어요 찰칵^^

리- 리브가 회원님들은
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봉사 헌신하는 2017년 됩시다

드- 드이상 넘보지 못하리
보- 보이지 않는 사탄아
라- 라랄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드보라여

드- 드넓은 저 땅을
보- 보라
라- 라랄라 찬양부르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리라

각 기관 회원분들이 지어주셨습니다

성경 숨은그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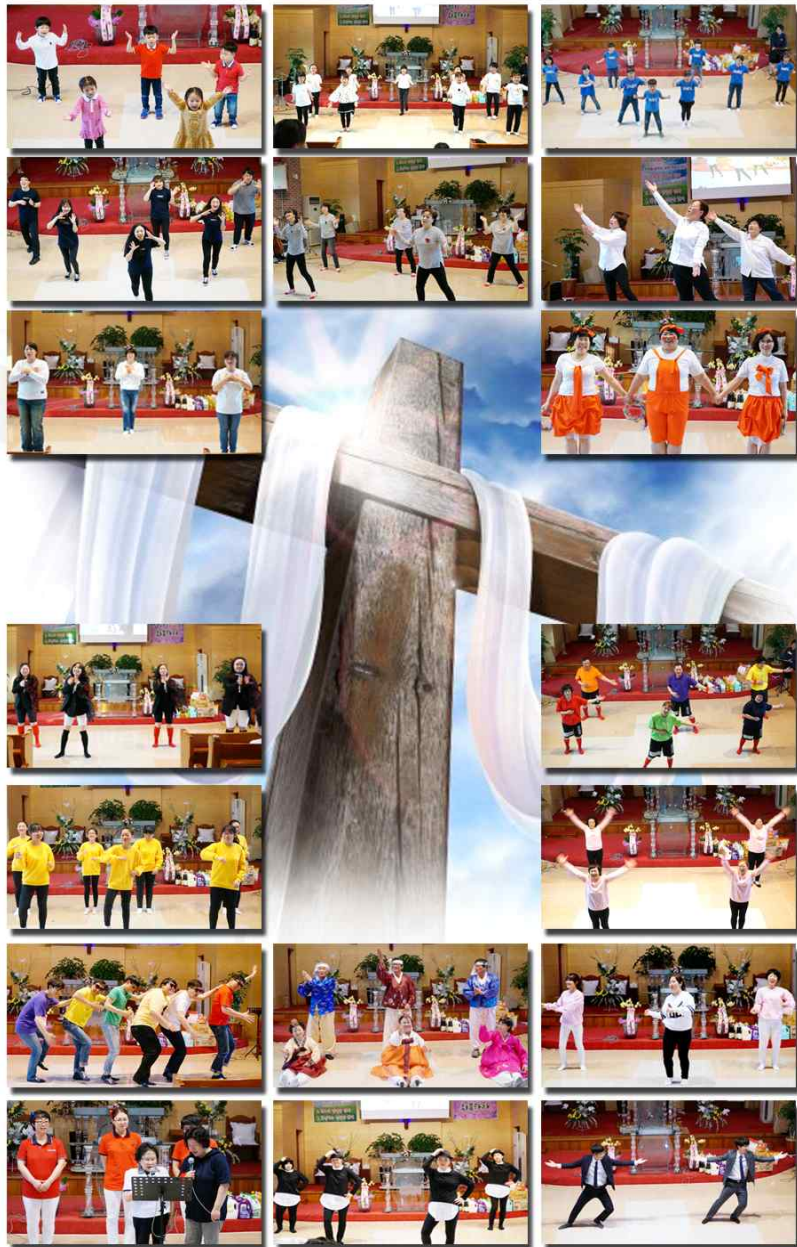
성경 숨은그림찾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 5-6절)
(숨은그림 : 양말, 뚫단배, 은행잎, 별, 솜사탕, 달팽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후 11:25-25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2017. 4. 16

예수님께 몸과 마음으로 영광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해 하던 날...

쇼 닥터 Show Doctor

‘의사’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식품을 추천하는 의사를 일컫는 말로, 홈쇼핑 등의 방송을 무대로 삼으며 인지도에 따른 출연료를 받고 홍보에 나선다.

정크 본드 Junk Bond

신용도가 매우 낮은 회사에서 발행한 쓰레기(Junk)같은 채권(Bond)을 말한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의 회사채로, ‘고위험 고수익채권’ ‘열등채’라고도 한다.

디마케팅 Demarketing

고의로 제품의 판매를 억제하거나 고객의 숫자를 줄이는 마케팅 방법으로 적절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리터루족 Returoo 族

‘돌아간다(Return, Retur-)’ 캥거루족(Kangaroo族)의 합성어로 결혼 후 독립했지만 주택난 또는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결국 부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낯선 또는 낯선 사람’이라는 ‘제노스(xenos)’와 ‘공포’를 의미하는 ‘포보스(phobos)’라는 두 그리스어를 합친 말로 생겨난 시사용어이다. 외국인 또는 낯선 사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일부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서 생겨난 용어이다.

인플루언서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지칭 했었지만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파급력 있는 일반인들이 늘면서 이들을 부르는 말로 사용한다.

* 성장과정

- essay.293 -



* 민음생활의 성장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나의 민음은 어느 수준까지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역 최고!!

-믿음 구역-



할렐루야! 믿음구역 구역장 송미정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사역을 한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그동안 힘들 때도 있었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올 한해 믿음구역의 구역장으로 우리 구역을 자랑 해 볼게요~ 우선 한기순, 박봉녀 성도님~ 김학순 권찬님과 박기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연령대가 참 다양하지요? 하지만 하나 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학순 권찬님을 자랑하자면~~묵묵히 구역장을 협력해 주시며 뭐든지 알아서 챙겨주시고 다독이시며 맛있는 것 보시면 구역식구들 생각나신다며 쌤짓돈 털어 먹이십니다. 젊었을 때 맛있는 것 많이 먹어야 한다고 혼수까지 해 주십니다. 이번에 부활절 운동대회 때 젊으신 분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열정으로 운동하시는 것 다들 보셨지요? 재미있고 단합된 우리 구역의 구역예배가 항상 기다려지신다는 우리 권찬님은 짱 중에 짱이십니다. 올 한해 남은 시간도 더욱 섬기며 사랑하겠다는 권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박기숙 집사님을 자랑 해 볼게요. ~~^^

믿음을 통한 입술에 고백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중에 계신 집사님을 볼 때마다 구역장은 정말이지 감사한 마음입니다.

눈물의 영성이 풍성하신 우리 집사님은 예배 때마다 은혜의 눈물을 많이도 흘리십니다. 그런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저 또한 눈물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 한해 그 누구보다 승리의 축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구역의 귀염둥이 박봉녀 성도님 차례입니다. 귀염둥이는 김학순 권찬님께서 부르시는 애칭이랍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당연하게 늘 차량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차가 없어 기동력이 부족한 구역장이 근심하지 않도록 구역 단톡을 통하여 시간까지 공지 하시며 성도의 집 앞까지 척척 차량을 대기하며 운행을 해 주십니다. 개성은 제 각기 너무 다르지만 재료가 잘 어우러져 맛있게 비벼진 비빔밥 같은 우리 구역이 행복한 가족 같다고 평하는 성도님~~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운행 해 주심이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또 지금은 몸이 편찮으셔서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한기순 성도님도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포근한 웃음 웃으셔서 저희들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분이십니다. 하루 속히 건강 해 지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믿음구역!! 정말 모이면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입술에 고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며 구역장과 구역식구들이 서로 협력하여 배가의 부흥을 이룰 수 있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기쁨과 감사로 서로를 아껴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 구역이 될 거예요.

우리 믿음구역~~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단 특 집>

- 이재록(만민중앙교회)-

1.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되고 동일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2. 자신에게 재림과 휴거를 알려주었다고 함
3.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간증 책만 읽어도 막 치료가 된다고 하고 사진만 안고 자도 치료되고...
4.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면 오시는 분으로 묘사

이재록은 일정한 계보가 없는 한국의 자생적 이단이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전형적인 이단이다. ‘눈에 보이는 신’도 흥분시키는데 이재록은 ‘무지개 이적’ ‘구름 이적’이라는 영상술을 이용한 사기적 수법으로 신도들을 열광시킨다. 최근에 사회적 물의가 된 것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거액의 도박을 하여 물의가 된 것이다. 그는 돌아와서 ‘주의 종이 너무 수고하는데 머리 좀 시킨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는 식으로 신도들을 무마시켰다. 자체 신학원을 세워 무자격 교역자를 양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이는 잘 알지 못하는 세인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만민중앙교회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며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1999년.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의 이단성 등을 폭로하는 프로그램을 문화방송 PD 수첩에서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란 제목으로 제작하였다. 만민중앙교회 2천여명 신도들이 야간에 수십대 버스를 동원해 방송사로 몰려갔고, 2층 주조정실에 들어가 직원들을 폭행하고 방송을 20여 분간 중단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때 아닌 동물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일로 만민중앙교회 부목사는 5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일반 청년들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90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999년 4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자본과 조직력을 동원해 해외로 진출하면서 한국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베들레헴에서 선교활동중인 강태윤(GMS소속) 선교사는 최근 교단에 보낸 선교편지를 통해 이씨는 지난해 12월22일 베들레헴 호텔에 모인 200여명의 현지인에게 자기 소견과 함께 아랍어로 된 간증집을 배포했다. 또 현지 유대인 교회 목사들을 돈으로 회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는 영문으로 현지에 공문을 보내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또 한기총에서도 영문 문서를 현지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등 초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달에 issue>



5월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 날 등을 비롯해 각종 휴일도 많이 몰려 있는 달이기도 하다. 거기에 날씨가 좋아 여행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이다. 전국 각지에서 각종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어디로 여행을 가야하나 즐거운 고민에 빠진 이들이 많이 있다.

올해는 황금연휴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점으로 징검다리 휴일이라 학교들은 봄방학을 주는 학교가 상당수고 회사들도 임시휴일을 정해 쉬는 곳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해외로 각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황금연휴를 즐기는 것도 일부다. 오히려 휴일 때문에 힘들어 하는 맞벌이 가정들도 많이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은 학교에서 효도 방학을 주어 쉬는데 부모는 회사에 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곤란함을 토로한다.

5월이 겨울처럼 춥고 눈이 많이 온다거나 여름처럼 덥고 비가 많이 온다면 여행을 편하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정의 달인 5월을 여행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날씨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더욱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다. 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얼마나 행복할까?



눈부신 5월이면 더 생각나고 그리운...

하루 종일 남의 집 품팔이로 지칠대로 지치셨을텐데 엄마는 그날도 어김없이 다 큰 막내딸 퇴근하자 빠르게 저녁상을 차려 놓고 부르신다. 철없는 딸은 차려진 밥상을 당연한 듯 받아먹고 설거지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딸에게 잔소리를 한다거나 원망하는 모습은 전혀 없으시다. 한번은 연락 없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딸을 애타게 기다리다 딸이 걸어온 건널목 앞에 가서서 혹여나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서 계셨다고 한다. 아마도 탕자를 날마다 기다리던 아버지도 이렇게 눈물로 서 계셨을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곤 한다.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 말이다. 당신 몸은 부서져도 내 자식만큼은 아끼시며 헌신하신 엄마다. 당신은 없어져도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을 고대하시며 평생을 사신 분이다. 자식에게 매 한번 듣지 않고 그 흔한 목 한번 안하시고 8남매를 품고 키우셨다. 오히려 남들처럼 부유하게 키우지 못하신 걸 항상 죄처럼 여기시며 안타까워 하셨다.

어느덧 철없던 막내딸은 장성한 자녀를 둔 중년의 엄마로 살고 있다. 남들은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난 아이들을 낳아도 엄마 마음을 몰랐다. 나이 마흔을 넘기니 그때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이미 엄마는 이 세상에도 없는데...

한 번씩 사무치게 그립다.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 그 옛날 그날처럼 밤새워 도란도란 이야기 하고 싶다. 김치에 짬지정도밖에 없는 밥상이지만 그 밥상 앞에 다시 앉아보고 싶다. 엄마에게 딱 잘 어울릴 것만 같은 예쁜 옷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다가 선물하고 싶다. 평소 잘 잡수시던 저 맛난 음식들을 잔뜩 사다가 엄마 앞에 쟁여놓고 싶다. 또 내가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실컷 자랑하고 싶다. 엄마는 내가 행복한걸 가장 기뻐하실테니까~

마지막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도 얼마 손을 잡고 흐느껴 우는 나의 손을 최대한 힘껏 잡아주셨다.

울지 말고 잘 살라는 엄마의 소리 없는 마지막 외침이었으리라~

해마다 예쁜 꽃이랑 파란 새싹이 천지를 덮어 눈부신 이 5월이면 너도 나도 카네이션 사두고 또 이것저것 선물 사두고 그리운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양가 부모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은 난 그들의 발걸음이 행복해 보이고 부럽기만 하다. 낳고 키우시느라 애쓰시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숨기시고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을 오년도 바라고 기도하시는 우리들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 중 누구도 자식 아닌 자 없다. 꼭 어버이날이 있는 5월뿐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찾아뵙고 많이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미진 집사-



◎ 이달의 교회소식

1. 어린이축제 / 5월 7일 오후3시~5시
2. 특별새벽기도회 / 5월 8일~12일
3. 교회야외예배 / 5월 14일 오전10시~오후6시
4. 효도여행 / 5월 16일 오전9시~오후6시
5. 부부헌신예배 / 5월 21일 오후7:30

● 공지사항

1. 5월 생활실전표어 /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2. 5월 신앙서적 / 관계의 걸림돌 극복하기 ‘이관직’ 저
3. 스페인축구부전지훈련 1차회의 / 5월 6일 오후2시 교육관

◎ 이달의 교우소식

1. 개업감사예배 / 이종희집사 - 5월 10일
2. 새가족등록심방 / 서옥자집사 - 5월 19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 모바일 웹 <http://www.difgc.org/m/index.htm>

우리말 새기기

극존칭이던 '마노라'가 '마누라'로 변해 높은 곳에서 '위신'이 똑 떨어진 인칭(人稱) 중에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은 조선시대 정3품과 종2품 관리를 높여 이르던 말이지요. 정2품 이상은 대감입니다. 영감은 나이 많은 남자를 홀하게 부를 때, 나이 든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 쓰입니다.



위신 절차된 인칭에 '마누라'도 있습니다. '마노라'가 원말이지요. 광해군이 아우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어머니 인목대비를 유폐시킬 때 정경을 궁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계축일기'에 나옵니다. "대비 마노라께 여쭙어..." "선왕 마노라부터 원망..." 대비나 왕 등 남녀불문 극존칭어였던 것입니다. 상전(上典)의 뜻이던 마노라가 마누라로 변해 지금처럼 쓰이는 것은 신분제 붕괴의 결과로 보입니다.

아내(마누라, 처)를 '우리 부인'이라고 하는 이들을 봅니다. 부인은 두 가지이지요. 결혼한 여자를 이르는 婦人,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夫人. '우리 부인'은 도대체 어떤 부인인가요. 夫는 남편입니다. 하늘(天) 위에 있는 남자라고 우기는 축도 있으나 상투 튼 사람 즉 장가 든 사람 모습을 본뜬 글자이지요. 婦는 비를 든 여성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남자는 청소를 통 안 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나요.

위에서 보듯 마누라가 영감보다 급이 한참 높았는데, 또 그런 경향이 굳어져가는 듯합니다.

퍼 오 글

<겸손>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라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길 기다리며,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 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 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 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낙타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짐을 얹어 주십니다. 이 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십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입니까?

새에게 날개는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배는 그 뜻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만든다.

겸손이 낳은 상대성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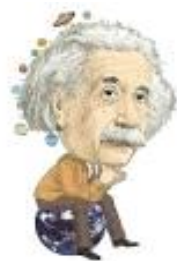
아인슈타인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상대성이론 발견으로 크게 성공한 다음에도 대자연 앞에서 자신은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많은 학문과 전문적인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라고 물었다.

아인슈타인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실험기구에 있던 물에 손가락을 적신 뒤 한 방울의 물을 툇 떨어뜨리며 말했다.

"나의 학문은 바다에 비유한다면 이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여 화사한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귀하고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주님께 울동을 준비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덧없고 덧없는 인생임을 알면서도 항상 두 마음이 교차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연약하고 움츠러든 마음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장성한 믿음위에 주님께서 주신 선함과 진실함으로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위해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폭넓은 마음 되길 원합니다. 여기 백암 동산에 주님의 몸 된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축량 할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는 완악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의 자비하심 따라 겸손함으로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전에 주님 말씀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만이 이전에 가득 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주일 대표기도- 송정숙 집사